



단대소프트고 단소담소

http://dankook.sen.h.s.kr

2022학년도 제4호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발행인 교장 오장원 / 편집인 교감 전영철 / 편집지도 교사 최재웅 / 편집 단대소프트고 신문반 / 발행소 단국대학교 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무행정부 2116-0120 교육연구부 2116-0180 학생활동지원부 2116-0160 미래교육홍보부 2116-0170 SW교육지원부 2116-0181
진로진학지원부 2116-0194 1학년부 2116-0140 2학년부 2116-0147 3학년부 2116-0150 행정실 2116-0102 FAX 2116-0176



수능이라는 높은 벽을 오르는 치열한 노력 수능시험 준비 사례



3학년 2반 김민준 학생

안녕하세요. 3학년 김민준입니다. 곧 3학년이 되는 후배들을 위해 제 경험을 토대로 정시, 수능 시험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대부분 수시와 정시 어느 한쪽에 집중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마다 선택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보통은 지금까지 받아온 내신 성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볼 수 있는 소위 "정시 파이터"들은 대부분 본인 내신 성적으로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시를 선택

하면서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수능에서 원하는 등급을 받기는 내신 시험에서보다 훨씬 어렵다.'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시험에서 1, 2등급을 못 받았다면, 수능에서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표점합 400점 이상, 꽤 성공적인 수능 성적을 받은 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시에서 학종, 교과로 원서를 단 한 장도 쓰지 않은 소위 '정시 파이터'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와 다르게, 내신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매 학기 수상 실적이 있고, 생기부도 괜찮게 채워져 있으며 내신 등급 또한 전교 1등입니다. 수시로 서성한 정도의 대학은 붙겠다고 생각했지만(실제로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정시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더 높은 대학에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sky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1년

이 이상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모의고사에서 sky는 커녕 서성한이라도 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성적을 들고 시작했습니다. 3월 저는 국수영 222를 받았습니다. 수학은 65점으로 겨우 2등급에 걸쳤고, 2등급으로 시작한 국어는 6월, 9월, 수능까지 결국 2등급을 받았습니다. 1년 내내 수능 공부에 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공부를 대충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 공부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절대 도피처가 아닙니다. 학교 내신에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또는 학교 생활과 활동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수시를 포기 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를 선택하고 수능에 매진해보겠다는 친구들을 위해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성화고를 다님으로써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점은 단연컨대 "직업탐구"입니다. 과학탐구의 10%도 안 되는 공부량으로, 과학탐구와 비슷한 표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까지 과탐 투과목 필수였던 서울대에 직업탐구를 보고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탐구는 6월에 시작해도 충분하므로, 그 이전에 경쟁자들보다 국어와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수학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능 체계에서는 수학이 가장 큰 지위를 차지합니다. 공대는 환산식에서 수학에 가중치를 부여하는데다가 수학이 국어보다 만점 표점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어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수학에서 좋은 성적(백분위 100)을 받았기에

서울대에 원서를 넣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시에서는 수학이 "깡패"입니다. 무조건 미적분을 선택하시고, 수능 전날까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국어는 연계가 50%나 되기 때문에, 수특 수완에 있는 작품들과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9월부터는 국어와 수학 실전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최소 세 개씩은 풀어보세요. 저는 수능 전 몇 주간은 하루에 1~2개씩 풀었습니다. 국어는 연계 작품을 공부하는 효과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시험지에서 시간 관리를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틀린 이유를 생각하고 정리해보는 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 정도가 끝입니다. 수시와 정시 어느 쪽을 선택하였든 남은 일 년간 매진하여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KSH

학교생활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가지는 힘

학교생활 내신 중심 사례



3학년 3반 박은혁 학생

Q1. 간단한 자기 소개와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3반 박은혁입니다.

Q2. 현재 합격한 대학과 학과, 지원 동기 등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와, 숭실대 AI융합학부 두 곳을 합격했습니다. 지원 동기라면 소프트웨어를 좋아하고, 특히 인공지능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Q3.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낌과 기분

성대는 원래 발표 예정일보다 일주일 전에 갑자기 조기 발표를 해버려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시에 친구 집에서 같이 놀고 있어서 같이 봤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도 같이 축하해줘서 기뻤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소리도 지르고 춤도 추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ㅋㅋ

Q4.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한 것

• **공부 방법 :** 저는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1~2학년 때는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내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3학년 때는 인강도 보면서 수능 공부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 **생활기록부(제2)관련 :** 저는 2학년 담임선생님이 손승기쌤이셔서 그때부터 세특도 열심히 채우려 했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특히 자연어처리 분야에 관심이 많아 관련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2학년 때는 친구와 자연어처리 스터디에서 관련

논문을 읽거나, 대회에서 챔피언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해왔고,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자연어처리와 모델 경량화 활동을 했습니다. 세특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일일이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 **학교생활 :** 1~2학년 때는 시험 기간에는 내신 챙기고, 나머지 기간에는 대회 활동을 하거나 세특을 채우면서 보냈고, 3학년 때는 외부 대회 활동을 안하고 그 시간에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Q5-1. 수능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였는가?

• 사실 수능은 그닥 잘보지도 않았고,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방과후나 틈틈이 남는 시간에 인강과 수능 기출 보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Q5-2. 영역별 공부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주다면

- **국어 :** 인강, 기출 문제집 문풀
- **수학 :** 인강, 기출 문제집 문풀
- **영어 :** 인강, 기출 문제집 문풀
- **탐구(과학, 직업)** : 직업선택했습니다.

Q6. 고3 생활에 대한 소감과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 학교생활과 공부 둘 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여러 활동들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매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활동을 소홀히 해도 되는건 아니고, 저는 잠과 여가 시간을 다 액용하면서 거의 항상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Q7. 졸업을 앞두고 느낌과 단대소고에 대한 인상과 소감

정말 힘들었지만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수업을 듣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졸업 축하하고 딱히 할 말이 없다!

• 기억에 남는 일, 기억에 남는 수업,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가운데 한 가지만 꼽자면, 2학년 때 교내 해커톤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에 대회와 시험을 동시에 앞두고 있어 매일 밤까지 야자하고 집에 와서 친구와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구현하던 때가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였고,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Q8. 누군가에게 단대소고를 소개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소프트웨어를 좋아한다면,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Q9. 2022년도를 보내며.....

- **가장 행복했던 일 :** 대학 합격
-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 :** 5~6월에 세특, 모의고사 준비, 수능 준비를 다같이 할 때...

Q10. 2023년도를 맞이하며 이루고 싶은 일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등 전공에 관해서 공부하고, 대학에서 여러 친구들 만나 관련 활동들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기타 전공에 대한 질문

• 전공과목을 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을 때 전공 공부에 대한 팀과 조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은 매번 질문해서라도 이해하고, 항상 흥미를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나 탐구 활동도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 전공실력을 키우기란 쉽지 않은 것 같을 때 선배만의 비결이 있다면?

정말 매번 몸으로 부딪혀가며 다양한 프로젝트, 대회활동을 통해 삽질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관심 가는 활동이라면 가리지 않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

3년간 단대소고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후배 분들 입시 파이팅하시고, 1기에 이어 후배 분들이 앞으로 좋은 단대소고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도 항상 감사합니다! DKSH





내가 단대소고를 사랑하는 이유

학교생활 전공 중심



3학년 1반 송원민 학생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3학년 AI SW과에 재학중인 송원민입니다.

Q2. 현재 합격한 대학과 학과, 지원 동기 등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UNIST의 새내기학부에 합격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써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연구장비를 보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Q3. 학력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낌과 기분

보통의 대학들은 특기자 전형임에도 내신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다수의 대학을 거치며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였는데 합격을 확인한 후에는 저를 알아봐 준 UNIST가 고마웠습니다.

Q4.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한 것

• 공부 방법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하지 못하였다면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시고 탐구활동보다는 수능이나 내신을 준비하여 대학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선생님들만큼 잘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를 찾았고 다른 기초과목보다 그 분야를 더 공부하여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면 최소한 고등학생 중에선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합니다.

입시는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지원자들의 깊이를 평가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수가 평가에 참여해도 수없이 다양한 지원자들의 전공이 평가자의 전공과 다르다면 그 평가는 해당 지원자가 진행한 활동의 깊이를 알기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저의 활동의 깊이를 알아봐 주셨지만 절대 모든 대학에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알아봐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학에서는 내신 점수의 비중을 크게 하거나 그냥 맘에 드는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아무리 훌륭한 활동이라도 "재점 기준에 의해" 탈락되는 이유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 생활기록부(세특)관련

각 과목과 관련되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용한 탐구를 진행하고 탐구과정과 결과를 세세하게 기록하면 선생님이 탐구활동을 살펴보고 활동의 우수성이 잘 나타나도록 세특을 기재해주시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력을 맞는 탐구활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력도 없이 좋아 보이는 자료만 가지고 탐구활동을 진행하면 자신이 진행하는 활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겉만 벽지르고 하고 실속이 없는 활동이 되어 전혀 경쟁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선생님들이 활동에 들인 노력을 알아보시고 우수성을 잘 나타내주십니다.

• 학교생활

학교에서 학생이 잘되길 가장 바라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서로를 위한다고 해도 정작 내신 시험이나 입시를 앞두고 서로를 겨우하고 경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진심으로 학생이 잘되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겠지만 3년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왜 힘들게 수많은 학생들의 세특을 기록해주시고 입시에 관하여 학생보다 고민하시고 학생의 학업 수행을 위하여 퇴근도 못하고 야자감독에 방

과후를 진행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입시를 겪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제 조언은 선생님들의 말을 잘 따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입시나 삶에 있어서 학생들보다 먼저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고 이를 통해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들밖에 없습니다.

• 기타

개인적인 의견인 만큼 저의 조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의 없는 이기적이 아닌 입시나 삶에 있어서 자신만의 미래를 위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좋은 성적을 받으세요. 이기적으로 자신만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5-1. 수능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였는가?

특기자 전형을 목표로 준비하였기에 전문 지식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수능을 본 이후에 생각해 보니 학교 수업과 방과후 수업을 기반으로 본인에게 부족한 과목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Q5-2. 영역별 공부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주다면

• 국어 : 국어 다양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하지만 책을 많이 읽어서 사고력을 키우면 성적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 수학 : 시험을 목표로 한다면 문제 유형이 한정되어 있기에 수능완성을 위주로 공부하면 좋겠지만 평소 수업 시간에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나 증명을 잘 숙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영어, "단어"

• 탐구(과학, 직탐), 탐구과목은 모든 시험문제가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6. 고3 생활에 대한 소감과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 학교생활과 공부 둘 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입시도 처음이었고 수업에서도 처음 배우는 내용이 많아서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초 과목에 대해선 모르는 것이 많았기에 선생님들이 상담해주신 방법을 따라 공부하였더니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에 대해선 인공지능을 이용해 다양한 현상을 연구해보고 싶어서 지진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고3 치고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였지만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명확했기에 크게 불안감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후배들에게 자신을 익히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잃게 되면 당연히 최고가 될 수 없고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을 갚아먹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결국 본인의 가치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다면 가족과 선생님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7. 누군가에게 단대소고를 소개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국내의 고등학교 중 최고의 실력을 가집과 동시에 가장 학생들에게 열정적인 선생님들로 구성된 학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학교의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느낀점은 보편적인 선생님들은 본인의 업무를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단대소고의 최고 자랑거리는 선생님들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08. 2022년도를 보내며....

• 가장 행복했던 일

저의 삶을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세상일이 모두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노력하였더니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하였

고 이를 통해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09. 2023년도를 맞이하며 이루고 싶은 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기초적인 실력을 다지고 대학 입학이 새로운 시작인 만큼 앞으로 10년간의 목표를 잘 세워보고 싶습니다.

10. 전공에 대한 질문

• 전공과목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을 때 전공 공부에 대한 팁과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때는 백준 브론즈 문제를 종류별로 몇 개 풀어보시면 익숙해집니다.

인공지능은 kaggle의 타이타닉 예제부터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잘 따라가면 좋습니다.

• 전공실력을 키우기란 쉽지 않은 것 같을 때 전략만의 비결이 있다면?

한달에 2일정도 날 잡아서 하루종일 백준이나 kaggle이나 새로운 코딩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이때 구글링하며 배운 내용이 그 달에 공부한 양 보다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11. 면접에 대한 질문

•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다?

코드를 끄내 보면서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 면접장 분위기와 기억에 남는 질문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고 xgboost의 작동방식 등 전공적인 지식을 질문하였습니다.

•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30분 동안 활동 과정에 대해 기술적인 질문을 하며 활동이 사실인지,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수시 성적이 처참해서 강제로 정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시로 대학가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 서 불안하거나 고민이 되지는 않았나요?

9월부터 수시 합격하는 친구들이 몇몇 보이면서 불안했어요. 하지만 멘탈을 잡고 공부했습니다.

정시를 선택하였을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공부나 다른 하루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였나요?

저는 잡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공부했습니다. 전공 공부는 2학기부터는 그냥 하지 마세요. 수업 안 들어도 뭐라 안 하실 겁니다. 저는 헤드셋 끼고 맨 뺨자리 가서 정시 공부했어요. 그러나 선생님과 수업에 대한 예의는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막 나가지는 말자구요.^^\img alt="Speech bubble with question mark icon"/>

정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수능이라는 시험 하나로 1년이 결정이 나다 보니 정말로 암박감이 심합니다.

정시를 준비한다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생각한 당일날부터 미루지 말고 당장 컴퓨터 치우고 공부하세요. 미루고 미루다가 수능 전날 까지 갑니다.

수시가 덜 대비되어 있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일단 냉철하게 자기 정시 성적부터 볼시다. 3월 당 성적 진짜 그대로입니다. 3월 성적 보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레벨이 +2 이상이 아니면 수시도 같이 하세요. 만약 정시밖에 딱이 없다고 하면 쌤들을 설득해서 수업 시간 자습하세요.

집념과 끈기로 이를 악물고 정진하라

공부를 해야 한다면 죽기살기로 합시다.



집념과 끈기로 이를 악물고 정진하라

공부를 해야 한다면 죽기살기로 합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출신고교(반 또는 출업 연도)
이현	이현	1999.01.01	남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3)
영 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선택과목	한국어 영어 미술	영어 미술	미술	영어 미술
표준점수	122	133	68	68
백 분 위	89	96	97	98
등 급	1	2	1	1

3학년 3반 이현 학생

Q1. 간단한 자기 소개와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대소고 1기로 졸업할 예정인 이현입니다. 저는 100% 정시파이터고요, 수시는 한 장도 안 썼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반 강제로 정시파이터가 되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해 드릴게요

Q2. 현재 합격한 대학과 학과, 지원 동기 등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정시 지원은 12월 29일부터라서 지원을 하진 않았습니다!

Q3. 학력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낌과 기분

1차 합격은 1월 중순 ~ 2월 초에 나와서 아직 소식은 없지만, 원하는 학교에 지원한 후에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능 시험 가채점을 하고, 그리고 실제 그것이 성적표로 확인되었을 때는 매우 기뻤습니다.

Q4.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한 것

• **공부 방법 :**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맙시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공부법이나 스터디 플래너 작성법을 보게 될 텐데, 자기에게 완벽하게 맞는 공부법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일단 비효율적이라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 먼저 하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신의 패턴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때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봅시다!

Q5 수능에 대한 질문

Q5-1. 수능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였는가?

먼저 생활 루틴을 잡은 다음, 나머지 시간을 다 공부에 할당하시면 됩니다. 저는 10시 취침 6시 기상 후 나머지 시간을 다 공부했어요. 잠에 드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수면 시간은 7시간~8시간 꼭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다음날 공부 효율 자체부터 달라집니다.

Q6. 고3 생활에 대한 소감과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고3 시절을 되돌아보면 진짜 너무 힘들게 산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1주일에 한 번은 운 거 같아요.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다는 것이 정말 보람차요. 고3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슬럼프를 겪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냥 끝까지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수능 50%는 성공한 거니까 슬럼프

Q7. 졸업을 앞두고 느낌과 단대소고에 대한 인상과 소감

•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다들 정말 수고했어요.

• 기억에 남는 일, 기억에 남는 수업, 선생님 : 수능 전주에 멘탈이 터져서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남니다. 그 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까워서 그 다음날부터 다시 평소처럼 공부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인생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Q8. 누군가에게 단대소고를 소개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 열심히만



'SW'라는 기회의 땅, '단대소고'라는 굳건한 땅



DANKOOK UNIV. SOFTWARE
HIGH SCHOOL

단대소고|오장원교장선생님

코로나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 시대와 맞물려 우리 사회를 더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폰을 통한 사회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기오류가 미비되었을 때 일어난 사회적 혼란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가 겪고 있는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단순한 예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SW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SW를 잘하는 사람이 변화의 중심에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반대로 SW와

관련 없는 직업의 상당수는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업을 얻고자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막상 힘들게 대학을 졸업하고 보니 내가 준비한 그 직업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하무겠습니까?

최고의 인기 직업인 의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악셀 크리거 미국 존스홉킨스대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스마트 조작 자율로봇(STAR)'을 개발해 뇌의 장을 봉합하는 칭자 연결 복강경 수술을 인간만큼 정확히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 한국직업전망'에서 의사 직업군에 대해 '의료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의 발전과 의료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개업의의 폐업이나 지역 재배치 그리고 개업의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의사로의 전환도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성실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회 현상을 잘 관찰하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고 그 변화

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화의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SW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SW 능력이 바로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SW 중심 사회로 우리 사회가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SW 개발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 현상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SW 인재 양성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2015년에 시작된 SW 중심대학 지원 사업을 기저로 SW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통해 SW 인재의 양적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 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최고의 개발자를 양성하는 질적 성장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언어와 논리적 사고력을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역량은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의 단계는 일상생활에 나타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데이터 자료로 일반화하여 알고리즘으로 해결책을 설계

하고 코딩을 통하여 컴퓨터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과 코딩 역시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입시 과목인 국·영수만을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한 후 SW를 배워서는 최고의 개발자가 탄생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정보 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발성 교육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가 양성의 기본은 모든 학생이 SW와 AI의 기초인 컴퓨팅 사고력을 어려서부터 익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단대소고와 같은 SW 전문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컴퓨터 기초 언어부터 컴퓨팅 사고력을 중점 배양하는 알고리즘 학습과 코딩 학습은 SW 인재가 되기 위한 튼튼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팀을 이루어 SW 개발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는 경험을 일반고에서는 거의 할 수 없습니다. 단대소고는 세계 최고의 SW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 학생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익혀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DKSH**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학생회장 부회장 소개



1학생회장 부회장 당선 소감 및 각오

저희를 믿고 뽑아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꿈꾸던 학교에서의 즐거운 인생과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3년, 학생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수학여행, 천조 공연, 체육대회에 더 많은 종목 추가 등 학우 여러분이 더 많은 추억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돌아보며 추진했던 것과 아쉬운 점

저의 첫번째 계획이었던 정시반이 추진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정시반은 앞으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앞으로 개설될 교내 스터디카페 자리 우선권이나 수능 문제 프린트 무제한 지급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었는데, 2023년에 재검토 하자는 선생님의 의견으로 의하여 보류되었습니다.

2023년에 꼭 해보고 싶은 행사 또는 사업, 활동

1. 신도부 : 학생회 임원들이 추진하고 싶은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죠.

2. 체육대회 어려운 종목 추가 : 달리기, 배구, 피구, 팔찌름과 같이 조금 더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됐으면 하기에..

3. 수학여행 및 출업여행 : 고교 3학년 동안 다른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겠지만, 밤새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고, 노는 등, 색다른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하기에...

4. 정시반 : 앞서 말했던 정시반이 추진됐으면 하기에...

5. 축제 (타 학교 초대) :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꼭 나오는 의견이 바로 교내 축제입니다. 여러 부스를 만들어 재미있는 경험도 하고, 다른 학교를 초대하여 우리 학교의 특별한 점을 소개하여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여러 좋은 점이 존재하는 축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대소고 학생들의 장점 및 칭찬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우리 소고 학생들의 장점을 뽑자면, 항상 예의 바르고, 서로에게 친절하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끈기 있는 모습이 돋보이는 학생들이라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DKSH**

20217 차시현

총학생회장 공약목록



순번	공약	공약 설명
1	학교 행사 활성화	{E-sports, 수학여행, 축제(단등제)등} 공부도 중요하지만 한번뿐인 고등학생 생활, 여러 추억을 만들어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2	휴대폰 허용	IT 학교에서 IT 기기가 제한 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 어느 정도의 제약(쉬는시간, 점심시간 이외 사용금지. 3회 이상 경고 시 압수)을 걸어 휴대폰 허용.
3	야자시간 개편 (실습실 사용, 오후 10시까지 후문 개방 등)	야자 시간 실습실 사용, 개인 PC(Chrome Book 제외)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실습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과제나 자습들을 통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오후 10시까지 후문을 개방한다. 야자가 끝난 후, 저 멀리 정문을 통해 하교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오후 10시까지 후문을 개방한다. 등
4	반마다 빔 프로젝터 전용 스피커 설치	여러 빔 프로젝터의 음량이 노이즈가 많이 들려 영상 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다 깔끔한 음량을 위해, 원활한 수업을 위해 스피커를 설치한다.
5	학생들의 목소리 상자 설치	학급 회의에서 떠올린 안건을 발표를 못한 경우, 소심한 성격에 의견을 내지 못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언제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건의함을 설치한다.



우리들의 균형잡힌 성장도우미 급식실을 파헤친다. 급식실 장민지선생님 인터뷰



1.식도작성시기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선순위

식단 작성 시 주간영양량 맞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은 조리 실현 가능성, 선호도를 고려합니다. 우리학교는 남학교 특성상 단백질 섭취가 높고 탄수화물 섭취량은 낮은편인데 주간 영양량을 위해 면, 떡등으로 영양량을 맞추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최애메뉴와 비법 레시피

저는 차돌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멸치, 다시마 등으로 기본 유효수를 충분히 우리고 좋은 고기와 야채를 넉넉하게 사용합니다. 나머지 비법은 조리사님 실력인 것 같습니다.

3. 지금까지 가장 반응이 좋았던 식단 또는 메뉴

우리학교 친구들은 분식류나 면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요 떡밥에 떡볶이가 세트로 나올 때나 스파게티 나오는 날, 우동, 짜장면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4. 반대로 지금까지 가장 반응이 좋지 않았던 식단 또는 메뉴

반응이 좋지 않았던 메뉴는 나물밥인 것 같습니다. 밥에 쥐나물, 곤드레나물 등 나물만 들어가면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한 번씩 시도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 급식 이용 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후식을 외부로 반출하면 변질 위험이 있어 급식실에서 먹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가서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도 안 돼요! 길에 그날 나온 후식 쓰레기가 아무 데나 버려져 있을 때가 많아 정말 고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3개의 학교가 함께 식사하는 만큼 시간과 메뉴 제약이 많은 편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식실 식구 모두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맛있게 식사해주면 좋겠습니다.

6. 급식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 반대로 어려울 때

학생들이 잘 먹고, 많이 먹고, 가끔 우리한테 맛있

었다고 얘기해줄 때가 있는데 그때가 가장 보람되고 힘이 납니다. 그날 너무 힘들었어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학생들이 한식 메뉴인 날은 선호도가 떨어질 때, 전반이 많을 때 그리고 저는 학교 급식 치침상 저염식을 추구해야 하고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이해관계가 얹힐 때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친구들은 조리원분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잘 먹겠다고 이야기를 항상 잘 해주어 항상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친구들의 즐거운 급식 시간을 위해 노력할 테니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DKSH**

20114 이한준 기자



농지지 팔아야 할 것

어른들은 지금껏 삶을 살아보니 학창 시절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진로를 선택하고, 유수한 직장을 잡아 높은 급여와 사회적 인정 속에서 시작할 때 나머지 삶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사실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기에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은 가성비가 좋은 투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러했다면 자식에게도 그런 삶을 이어주고 싶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자식이라

도 성공의 길로 이끌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볼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의 평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성적 상위권에 자리를 차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다른 쪽도 바라보아야 하며, 배려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삶 전체에서 학교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 이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지 못했던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아가는 경우가 많

서도 그런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요즘 들어 괜찮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그립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과 사회의 지원이 가능해 좋은 투자로 널리 인식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DKSH**





단대소고의 큰 축제 진로학술제(해커톤대회) 성황리에 열려



금식사진

지난 8월 19일 단대소고의 명실상부한 대표 행사인 해커톤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해커톤대회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멘토진과 함께 SW와 관련된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단대소고의

대규모 행사이다.

올해 2회차를 맞은 해커톤대회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정보보안, 게임, 콘텐츠 및 영상 부문으로 팀을 모집하였고, 2학년 학생들을 중심



금식사진

으로 3~5명씩 팀을 이루어 총 25개 팀, 전체 86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15명이 행사 스텝으로 참가해 각자의 개성과 역량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해커톤대회는 각 팀별로 준비한 포트폴리오

와 작품을 전시한 부스를 운영하고 1,3학년 및 학부모들이 관람객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열심히 설명하는 학생들의 열정과 땀방울로 현장의 분위기는

아주 뜨거웠다.

부스운영이 마무리 된 후, 현장 관람객들의 모의 투자 금액을 집계해 외부수상팀을 시상하였다. 서로 잘도왔상을 게임동아리(팀장 오준호), 치킨먹을상에 kimot(팀장 김성현), 드래프톤(팀장 정민우) 총 2팀, 앞으로 잘할상에 NOID2(팀장 김도현), 명함이다냥(팀장 최지훈) 총 2팀이 수상하였다.

교내 시상은 해커톤, 메이커톤, 게임창작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였고 각각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씩 수상하였다.

해커톤 최우수팀은 잭스팸(팀장 이병현)이, 메이커톤 최우수팀은 kimot(팀장 김성현), 게임 창작 최우수팀은 드래프톤(팀장 정민우)이 각각 수상하였다.

SW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참여 학생들은 2~3개월의 장시간동안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의 폭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값진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 기대한다.

20114 이한준

교내 벤처동아리, 비즈쿨 페스티벌 참가해 큰 인기 끌어



많은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았다.

NOID 대표 정필규는 “6달간 제작한 4개의 게임의 프로모션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팀원들 간의 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비즈쿨 페스티벌 참가로 인하여 다른 학교 사람들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의 뚜렷한 목표 세울 수 있었다. 이에 비즈쿨 페스티벌은 우리 팀에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발판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교내 벤처 동아리 RD는 AI를 활용한 챗봇 심리테스트를 발표하며 더욱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문들로 구성된 텍스트를 통해 사용자의 심리테스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많은 청소년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사용자가 직접 심리테스트를 구성하고 공유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심리테스트를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RD 만의 심리테스트 서비스 특징 덕분에 심리테스트를 체험한 많은 청소년들이 또 다른 청소년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부스는 인산인해를 이루

NOID, RD 등 참가해 직접 개발한 게임 및 심리테스트 발표

기도 했다.

RD 대표 조건희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제작한 아이템을 보여드리고 호응을 얻을 수 있어 즐겁기도 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부스 운영을 통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용자들의 니즈를 직접 파악할 수 있었고, 파악한 부족한 점들을 앞으로 점차 보완해나가며 더욱 더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해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벤처동아리 NOID와 RD는 비즈쿨 페스티벌 동안 거둔 수익금을 활용해 추운 겨울철을 보내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 기부에 사용할 예정이다.

2개 동아리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한 게임 캐릭터 관련 굿즈, 심리테스트 챗봇 캐릭터를 활용한 스티커 등을 판매하며 수익금을 거두었다. 한편, 국내 최대의 청소년 창업 축제인 2022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행사로 열렸던 아쉬움을 3년만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로 재개하며 비즈쿨 교사, 학생은 물론 지역 내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약 3일간 세종 호수공원에서 열린 이번 2022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은 약 19,039명이 행사장에 방문했으며, 미래 기업가를 꿈꿀 수 있도록 상상, 감동, 공유, 재미를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창업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비즈쿨은 Business와 School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로 기업가정신 함양, 모의 창업·체험교육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성화고 사회적 가치 아이디어



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이 시상식에 참가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단대소프트고를 포함한 서울 영상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한강미디어고, 서울공업고 등 쟁쟁한 학교의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전망이 좋다고 평가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의해 참가하였다.

대상으로는 청소년 친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을 아이디어로 발표한 서울영상고의 ‘NearBY’팀이, 최우수상은 시니어와 주니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 아이디어로 예림디자인과 ‘카피바

라’팀이,

우수상은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수공예품 제작 및 판매를 통한 청소년 일자리 창출), 예림 디자인(교자로 우회사 환단보도에 카메라 및 센서 알림) 등을 포함한 총 5개 팀이 수상하였다.

장려상 대표로는 NFC와 지문 인식 기술,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여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한 단대소프트고(최지훈, 최현우, 박종혁, 김유민, 임현빈, 이원기)가 수상하였다.

나세리 한양여대 총장과 소셜혁신연구소 안지훈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4차 산업시대

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활발한 소통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미래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단대소프트고 학생들도 더욱 더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시선의 폭을 넓히며 그저 소프트웨어적 기술만이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과 함께 미래적으로 전망이 좋다고 평가될만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211 이건우 기자

본교 2학년 이원기, 최지훈, 박종혁 학생 포스코ICT 사장상 수상



우리 학교에서 팀 WaterBox로 이원기, 최지훈, 박종혁 학생이 전국 청소년 AI 창의 경진 대회에 참가하여 포스코 ICT 사장상을 수상하였다.

청소년 AI 경진대회는 AI 기술을 접목해 환경, 안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애플리케이션으로 프로그래밍해 구현하고 우수작을 시상하는 대회로 올해로 3회째 진행되고 있으며, 본선에 오른 7개 팀은 ICT 판교사옥에서 시연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과기정통부장관상(1팀), 포스코ICT 사장상(1팀), 지능정보산업협회장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2팀) 등으로 나눠 각각 시상하였다.

심사는 카이스트, 포스텍, 연세대 등 교수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과 포스코ICT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 평가위원들이 맡았으며, 수상 작품인 WaterBox는 매년 증가하는 수상 쓰레기의 문



제를 해결하고자 물 위를 주행하면서 수상 쓰레기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위치로 이동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Water Box 제작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려던 수중 모터가 과부화되어 회로가 불에 타버리는 사고가 있어 3D프린터와 아두이노 우노를 이용해 수중모터를 직접 제작하거나 쓰레기를 인식할 때 프레임이 심하게 낫다는 이유로 젯슨나노를 포맷시켜 인공지능 모델을 교체하는 등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찾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1 이건우 기자

[특성화고 대학 진학] 특성화고전형으로 대학진학하는 방법(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알기)

?

우리는 언제 무엇을 배울까? 우리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며 대학 진학 준비하기



우리는 언제 무엇을 배울까? 우리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며 대학 진학 준비하기

"특성화고에서 내신 관리를 잘 하면 대학 가기 일반고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들어서 지원했어요."

"특성화고에서 IT 계열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특성화고는 수능 준비를 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특성화고는 취업중심이다보니 실습이 많고 들었는데... 걱정이에요."

"담임쌤 말로는 어차피 너희는 수능 최저등급 맞추기 어려우니 대학 가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특성화고 전형으로 다른 학과 지원할 수 있나요?"

위 질문은 대학진학을 하고 싶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민이다. 특성화고 전형은 교과의 구성과 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과는 다른 준비와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고 학생들은 '전문교과(실습교과목)'를 학습하지 않지만, 특성화고 학생은 전문교과(실습교과목)의 비중이 높고, 보통교과(국, 영, 수, 사, 과)의 비중이 낮은 편이라 일반고 학생들처럼 내신과 수능 위주로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내신(보통교과+전문교과)+수능준비(최저등급 대비)+학생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근 입시에는 정시 비율이 점차 늘고 있어서 정시를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비율도 늘고 있다.

[학생부] 최소 이수단위란?

현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함.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전문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설립,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함. 교과 영역별 이

수단위가 정해져 있는데, 대학에서 최소이수단위를 정할 경우 전 학년 동안 대학에서 정하는 최소이수단위만큼 이수해야 지원자격이 주어짐. 즉, 최소이수단위란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최소 이수해야 할 단위수로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한됨. -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단위'는 192단위이다(창의적 체험활동 포함)

[학생부] 선택 이수 단위란?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 교과군에서,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단위수를 말한다

* 대학에서 특성화고 전형으로 선발 시, 동일 계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 지원자격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국어, 영어, 수학의 과목 중에서 학년별 교과 편제가 수능 과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의 경우를 예로 들면 1학년에서는 국어, 2학년 문학, 3학년 1학기 독서, 2학기 화법과 작문으로 편제하여 수능을 위한 교과목을 개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어, 수학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수학을 예로 들면 1학년 수학, 2학년 1학기 수학I, 2학기 수학II, 3학년 미적분을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학년에 한국사를 배치함도 수능시험을 대비하려는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암기의 성격이 대체로 강한 한국사의 특징을 고려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흥미와 학과 특성과 적성, 선호도에 따라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듣는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 때 산학협력이 이루어져 기업체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학겸임교사가 지도하는 것 또한 우리 학교 전공 수업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교 김동협진로진학부장은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대학 진학하려면 학교 내신과 수능 준비를 하고 전문 교과의 준비도 철저히 하는 학생이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소고의 경우 교육과정이 수능 시험과 일치함으로 특성화고임에도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1학년(이수단위)

보통교과(38), 전문교과(22)

2학년(이수단위)

보통교과(26), 전문교과(34)

3학년(이수단위)

보통교과(24), 전문교과(42)

다음으로 전문교과의 특징을 살펴보자.

우리 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학 진학을 위해 보통교과의 비중을 높여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전공 실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과의 배치가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전공과목 중 계열 필수 과목을 컴퓨터 관련 전공과목의 유계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전공과목에 대한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 가고 실습 과목들의 순서를 잘 배치하여 자칫 전공 과목이 어려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6개의 전공 선택 과목(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실무, JAVA프로그래밍, PYTHON프로그래밍, 리눅스프로그래밍)은 무학년제를 시도하여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학생 개인의 실



학교 종이 땅땅땅! 아이들아, 이번 우리의 겨울방학은?



예비 고3들을 위한 현재 고3 담당 선생님들의 겨울방학 공부 tip



국어김태훈 선생님의 TIP

남이 이끄는 학습이 아닌, 자신이 주도하는 학습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만큼의 학습 자체가 필요합니다.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기출문제를 최대한 풀면서 최대한 수능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국어 학습의 기본입니다.

독서는 객관적인 글이므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롯이 자신의 독해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글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문제를 풀면서 독해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공부를 해야합니다.

문학은 독서와 달리 주관적인 글이므로

독자마다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능의 문학은 주관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시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문제 푸는데 필요한 만큼만 분석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더디고 어렵습니다. 인강이든 방과후든 학교 수업이든 교사의 스킬을 배우고 적용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택과목은 학력평가 1, 2등급 정도의 실력이라면 언매를, 3등급 이하라면 화작을 추천합니다. 화작은 학습하면 실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매의 문법은 일정한 학습량이 요구됩니다. 등급이 낮은 6~9 등급의 학생인 경우 표준점수가 높은 언매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어(순승기 선생님의 TIP)

영어는 결국 국어처럼 언어로서 꾸준한 학습이 중요합니다. 매일 최소 1시간 정도의 학습을 통해 감을 키우거나 유지해야 합니다. 어휘는 다양한 지문을 학습하며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며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체화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본인이 기본 어휘력이 너무 부족해 지문 해석이 어려운 경우 체화 과정과 동시에 시중에 판매하는 단어장으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기본 어휘가 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들어있는 단어장에 나온 단어만 제대로 학습해도 충분합니다. 어법의 경우 최근 수능에 나오는 어법 유형

은 10가지 정도로 추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3학년의 경우 수능 전에 수능 빈출 어법 특강 수업을 진행했고, 올해 수능 어법 문제도 그 특강에서 다른 유형에서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영어 등급을 결정하는 독해 유형은 빈칸, 순서, 문장 넣기, 어휘, 어법 유형입니다. 어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모두 글의 주제와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평소 학습할 때 꼭 글의 주제와 흐름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수학(이지예, 신석영 선생님의 TIP)

수학은 학습 누계가 가장 영향이 큰 과목입니다. 수학 I, II의 기본 내용 없이는 미적분과 같은 선택 과목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1학년(예비 2학년)의 경우 공통 과목을 충실히 공부하며 1학년 때 부족했던 학습 요인을 보충해야 합니다. 예비 고3의 경우 우선 3점 수준의 문제를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기본 내용의 숙지와 약간의 응용이 되도록 하여 한 등급씩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요즘 수능 수학의 출제경향은 통과목에서 난이도가 높아지고(중상 이상) 여기서 수준의 차이를 판별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고득점을 노리는 2, 3등급 학생들은 최근 2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을 꾸준히 풀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정의와 기본 내용의 숙지가 이루어져야 함.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기본이 우선입니다.

모든 교과와 마찬가지로 기본 이론 숙지 - 응용문제 정복 - 심화 문제 도전 - 실전 연습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수학의 경우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3~5등급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본인이 풀었던 문제를 3번, 4번 풀어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1, 2등급 학생들은 본인이 잘 틀리는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연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과목 선택의 TIP을 주자면 미적분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 이전에 비해 난이도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점수를 잘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졌으므로 상위 등급을 위해서는 더 꼼꼼하게 공부해서 정답률을 높여야 합니다.

학률과통계의 경우 수2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이라면 이과목의 선택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표준점수가 기하나 미적분에 비하여 낮지만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이라면 이 과목이 높은 점수를 받기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하의 경우 공간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 과목에 특화된 학생들이 있으므로 본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미적분보다 이 과목을 선택하는 편이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감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과목이므로 감을 잊지 않도록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카드뉴스-사라진 학생들, 학령인구 감소



20517 임현빈 기자

전 세계 출산율 꼴등 대한민국

총 출생아 수 26만 562명, 합계출산율 0.808명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며 인구절벽 공포 확대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사라진 학생들, 학령인구 감소

학교에 다니는 연령대(만 6~21세) 인구수
지속적인 감소 추세

2021-2040 대학 입학 가능인원 추계



대학 입학 정원 미달 사태

수능 응시자 감소로 입학 정원 미달 사태 발생
대학에서는 입학 정원 수 감축 중



우리나라는 연이은 출생아수의 감소로 총인구가 줄어드는 자연감소가 진행되면서, 학령인구 또한 자연스레 감소추세에 들어갔다.

이 같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입학 정원 미달사태까지 겪은 대학들은, 이대로면 신입생들이 적어져 재정난을 겪을 수 있기에 입학정원을 줄이고 규모를 축소시키는 등의 대안을 추진중에 있다.

후를 2024도 수능에서는 크게 관계 없을것이라고 판단된다.

대입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단위: 명, 2022년 4월 20일 기준



2024년도 수능에서는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 정시비중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6일 전국 회원 대학 196개의 2024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선발 인원은 34만 4296명으로 2023학년도 34만9124명에서 5000여명 줄었다.

하지만 이러한 동향에도 수도권 대학들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위해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최소한 향후 올 2024도 수능에서는 크게 관계 없을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동향에도 수도권 대학들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위해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최소한 향후 올 2024도 수능에서는 크게 관계 없을것이라고 판단된다.



3분의 1 수준이다. 수도권은 정시 확대, 지방은 수시 위주가 이어지는 추세다.

서울 주요 대학 수능위주 전형 선발 비율

단위: % ※서울 16개 대학 정시 비율 40% 이상 선발, 대교협 공시 기준

● 2023학년도 ● 2024학년도



카드뉴스 6

전국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은 21%, 수시모집 비율은 79%다. 전년도 대비 정시 비율이 1%p 줄었다. 하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정시 비율이 소폭 늘었다. 정시모집 선발비율은 2023학년도 35.3%에서 2024학년도 35.6%로 0.3%p 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정시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시 비율이 11.9%에 불과해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도권은 정시 확대, 지방은 수시 위주가 이어지는 추세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 아르헨티나를 말하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골을 넣어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확정시킨 선수는 연장전에 교체투입된 곤살로 몬티엘이다. 그런데 몬티엘은 골을 차 넣고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을 확정 지은 순간 환호하면서 달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눈물을 훔쳤다. 감격한 탓도 있었겠지만 실수하지 않고 골을 잘 넣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사건이 떠올랐다.

중남미에서는 축구가 거의 종교다.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는 1969년에 월드컵 예선을 기회로 전쟁까지 치렀다. 선수들은 중요한 경기에서

의 실수가 생명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안다. 몬티엘은 아르헨티나 3:2로 우승을 눈앞에 두었던 연장 후반에 공이 날아와 부딪힌 헨더링으로 프랑스팀 음바페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양 팀의 승부는 3:3 원점으로 돌아가 결국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콜롬비아 대표팀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사건이 떠올랐다.

몬티엘이 카타르 월드컵 마지막 골을 성공시켜 악몽은 깨끗이 사라지고 승리를 축하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대표팀의 36년 만의 승리로 아르

헨티나는 전국이 축제 분위기다. 이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은 유니폼에 별을 세 개 달게 된다. 브라질 5회, 독일, 이탈리아 4회에 이어 3회로 그 다음이다.

리오넬 메시는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거의 성인 반열에 올랐다. 아르헨티나 청소년들은 메시라는 우상을 따라 축구로 성공하기 위해 범죄와 마약을 멀리한다. 사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여러 선수들은 그렇게 성장했고 메시의 지도와 지원으로 오늘에 이른 선수들이다.

아르헨티나팀의 승리는 국민들에게 축구를 넘

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2022년 아르헨티나의 인플레는 80%대였다. 전 국민의 소득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국민들은 생활고와 전반적인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다.

자원, 기후, 인구, 지리 모든 것이 축복받은 땅 아르헨티나는 유독 정치가 부실해서 경제 상황이 영망한 나라다. 군사독재도 있었지만 폐론주의라고 불리는 이념도 큰 원인이다. 폐론주의는 1946~74년 세 번 집권했던 후안 페론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것인데 폐론의 성향과 공과는 다름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후 정부들의 영망이었던 경제정책 조류 전반을 빛낸 말이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마구 뒤섞인 자생적 정책 기조가 현대 아르헨티나의 특징이다. '자멸의 정치'로도 불린다. 결과는 인플레, 자본유출, 국가부도였다.

아르헨티나는 정치만 정상화되면 과거 미주 지역 2위였던 경제 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폐론주의에도 한 가지 강점은 있었다. 대대적인 정부 보조금 덕분에 출산율이 높았던 것이다. 생필품에까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 아르헨티나는 다른 나라들이 겪고 있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없는 젊은 나라다. 대표팀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벨리스크 광장에 운집했던 인파가 나라의 느낌 그대로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이런 현대 사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그저 남미에 있는 축구의 나라, 메시와 마라도나의 나라로만 기억했던 친숙하지만 우리나라 아르헨티나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재도약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20216 진정현 기자





애플페이 국내상륙,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출시 8년여 만에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식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애플페이 출시를 앞두고 국내 간편 결제 업계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글로벌 2위 결제사인 애플페이가 뛰어난 보안성과 편리성으로 기존의 삼성페이나 카카오 페이의 자리를 위협

할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페이는 공식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현재 금융당국의 법률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애플페이와 단독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현대카드는 법률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서비스 출시할 예정이다.

애플페이가 시장에 안착한 비결은 결제 편의성이다. 비접촉식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해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단말기 앞에 가져가면 즉시 결제된다. 사용자 간 송금도 손쉽고 안전하다. 아이폰의 '앱 클립'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애플페이를 통한 사용자 인증이 쉽게 이뤄진다. 그 덕에

공유킥보드나 개인 간 중고거래 등 오프라인 결제도 용이하다. 기존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처럼 정형화된 결제가 아닌, 사용처 특성과 용도에 맞는 결제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게 애플페이의 강점이다.

특이한 점은 애플페이가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NFC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한 곳이 별로 없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NFC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하다. NFC 단말기 보급을 위해선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지원이 필수지만 현행법상 신용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연매출 3억 원 초과)에 단말기 보급 비용을 지원

할 경우 불법 행위로 처벌된다. 단 환경 변화에 카드사가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아니다. 이에 현대카드는 이를 근거로 한 NFC 단말기 보급 확대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삼성보다 애플 휴대폰을 선호하는 10대 20대 사이 젊은층이 늘고 있다.

애플페이가 출시되고 상용화 된다면 이러한 보안성, 편리성과 보편성을 앞세워 한국에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20407 서우석

애플페이 도입... 어떤 문제점들이 존재할까?



애플페이

23일 현재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 카드는 애플과 독점계약을 맺고 곧 애플페이 출시를 앞둔 예정이라고 한다. 예전부터 늘 애플페이 한국 출시는 화제가 되는 주제였던 만큼 많은

국내 사용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늘 발목을 잡는 것은 기반 인프라 구축과 비용이다. 과연 애플페이가 도입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을 빚게 될까? 우선 가장 큰 단점으로는 국

내에서는 애플페이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플페이는 NFC 기반의 결제시스템이라 결제를 하기 위해선 NFC 단말기를 요구로 하는데, 현재 국내 NFC 단말기의 보급률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의 약 2%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애플페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NFC 단말기의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사용하던 기기를 약 15~20만원 상당의 새로운 기기로 새로 마련하기엔 부담이 된다는 가맹점주들의 입장이 우세한 편이다. 그렇기에 애플페이가 도입이 된다하더라도, 사용 가능 가맹점이 한정적이기에 실물카드를 완전히 대체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 다음으로는 현재 애플페이는 현대 카드와 독점으로 손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의 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결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함이란 명목이 있을 수 있으나,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꽤나 어렵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다. 이와 달리 삼성페이는 여러 종류의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현대 카드 사용자로 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수요가 한정적이기에 위에 언급하였던 단말기 보급 문제와 연결될 것이다. 현재까지 많은 간편결제 사업

자들이 오프라인 페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를 해결한 것은 삼성이 유일하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본다면 국내 인프라의 관성을 깨고, 발전된 기술의 도입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만, 현대카드에서도 애플페이의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NFC 결제 시스템 보급화가 가져올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0417 조건희



조수석의 달걀

힘든 몸 이끌고 돌아오셔도
아들 늦지 말라고 차에 태워주시는
아버지
아들이 행복한 일 했으면 한다는 말에
마치 숨을 쉬고 있는 달걀처럼
죄책감이 무심코 바람으로 불어나왔다
베토는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존재한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
된다

내가 꿈꾼다는 것은 곧
내가 방향을 잡고 있다는 증거이자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
했다
방향을 잡고 나아가며
유한한 세계의 가장자리에 닿을 때
그리고 그 벽을 뚫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달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병아리가 되어
세상과 첫인사를 나누게 되겠지



10418 정하람



미래

오늘도 시작하는 야자
불이 깨져있는 교실을 보면
미래에 빛날 나의 미래를 비추는
햇빛과
미래를 위한 고난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나를 반긴다
의자에 앉아
나의 미래를 위한 것 들을 준비한다
내가 쥐고있는 이 샤프



내가 쥐고 있는 미래
차근차근 써 내려가 본다

책에 써 놓는 형형색색의 형광펜들
보고 또 보니
어찌 이리 다채롭고 예쁠까
왠지 나의 미래도
다채롭고 아름답게 비춰질 것 같다

참 여러모로
내 미래같

10311 성경후

빛나는 당신의 이름! 그대는 소고인이어라!!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합니다!

강지승 | 강요셉 | 금진철 | 김단우 | 강태훈 | 강지우 | 김민준 | 김보경 | 김도원 | 고경훈 | 곽동우 | 김범 | 김선우 | 김민재 | 고대현 | 김민재 | 김상민 | 김예성 | 김성주 | 김남구 | 김예찬 | 김희환 | 김준엽 | 김성한 | 김영우
김율 | 문창빈 | 김지훈 | 김승민 | 김영호 | 김의봉 | 박광현 | 박봄준 | 김종건 | 김지원 | 박정현 | 박은혁 | 김윤환 | 김현민 | 박광경 | 박현수 | 양지호 | 류환준 | 남궁민 | 박정기 | 배진석 | 윤준서 | 배연후 | 문요한 | 서진형
송기태 | 윤호준 | 신지원 | 박근우 | 성인창 | 신민석 | 이건효 | 신태환 | 박준서 | 송선엽 | 신은수 | 이상문 | 이나혁 | 박현우 | 송원민 | 오은탁 | 이주환 | 이병훈 | 신상이 | 이동민 | 이재상 | 이현 | 이재용 | 양성식 | 이이삭 |
이형택 | 임창 | 임재언 | 윤성준 | 이채우 | 임채민 | 장동화 | 최준희 | 이정우 | 이현창 | 정기용 | 정준혁 | 활동희 | 이태민 | 임재호 | 정성욱 | 채태병 | 임근 | 장우혁 | 조병우 | 장준호 | 전지훈 | 한재광 | 조우식

한해 동안 학생들을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손승기 | 김태훈 | 오희주 | 이지예 | 신석영





'이해 없는 세상에서 나만은 언제라도 네 편인 것을 잊지 마라. 세상은 넓다. 너를 놀라게 할 일도 많겠거니와 또 배울 것도 많으리라'



01. 올 한 해를 보내며 반 아이들과 가장 즐겁고 좋았던 일

3-1반(손승기 선생님)

학급의 모든 학생이 별일 없이 1년을 잘 보냈다는 점입니다. 공부를 잘하던 그렇지 않던 어느 대학을 가던, 중요한 것은 학창 시절에 어떤 추억을 남겼는지라고 생각합니다.

3-2반(김태훈 선생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빼곡한 매일을 큰 사고 없이 견디고 버텨온 것에 대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3-3반(오희주 선생님)

단소고에서 담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중 한때인 고3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보람되었기에 딱 한가지를 뽑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면, 목표가 없던 학생이 저의 지도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

고 또 나이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서 목표가 뚜렷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보람되었습니다.

기뻤던 일은 뽑자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어 열매를 보았을 때 기쁨을 누리듯이, 저의 고3 제자들이 원하는 대학 합격 소식을 들려주며 기뻐할 때 함께 1년을 묵묵히 걸어온 고3 담임인 저도 제 일처럼 매우 기뻤습니다.

3-4반(이지예 선생님)

체육대회에서 축구 시합 1등을 한 일 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의 뛰어난 협동심과 단합심을 볼 수 있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현재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의 수시 합격 소식이 속속 들려올 때마다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3-5반(신석영 선생님)

첫 상담 때 가장 강조했던 점인 출결에 대해 끝까지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 주어 가장 보람 있었고, 수시 전형에 좋은 결과가 있어 기뻤습니다.

02.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웠던 점

3-1반(손승기 선생님)

아쉬웠던 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3-2반(김태훈 선생님)

내가 좀 더 노력한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최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니 그 부족한 부분은 서로의 정으로 채웠으면 합니다.

3-3반(오희주 선생님)

담임으로서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들 중 한 순간이기에 좀 더 학생들과 함께 이 순간을 즐기고 누릴 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엄하게 대했던 순간들은 없었나하고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좋게 넘어갈 수도 있던 일을 예민한 시기의 고3 학생들을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대해주지 못한 적은 없는지 아쉬움으로 남게 되네요.

03. 출업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

3-4반(이지예 선생님)

1년을 되돌아보며 즐거운 추억 하나 정도는 꼭 남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전공 분야는 대학 이름과 학과보다 앞으로 노력이 더욱 중요한 분야입니다. 올해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길 바랍니다.

3-5반(신석영 선생님)

1년을 되돌아보며 즐거운 추억 하나 정도는 꼭 남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원하는 대학입시를 얻고 서마치 민선인 배에서 출발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원치 않는 결과를 마주쳐 마치 배가 파선된 상태로 항해길에 나아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무엇도, 어떤 환경도 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매우 소중합니다.

04. 며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며 한걸음 한걸음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젠가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고3 수험생이라는 인생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을 함께해서 저도 감사했고 언제가 되었던 꼭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소고 3학년 3반 모두 끝까지 합내요~

3-4반(이지예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 펼치지 못했던 꿈과 재능이 있다면 사회 나가서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3-5반(신석영 선생님)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지금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2020 엄석주 기자,
2025 주성현기자



아이들아 너희의 한걸음 한걸음을 응원해!



01. 올 한 해를 보내며 반 아이들과 가장 즐겁고 좋았던 일

1-1반(정하림 선생님)

처음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1학년 1반 학생들을 만나서 한 명 한 명 알아가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좋았습니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지, 장점과 단점은 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 명 한 명에 대해 모두 알아가는 모든 과정이 좋았고 말 안들을 때는 잔소리하고 평상시에는 함께 장난치는 함께 보낸 모든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1-2(송상원 선생님)

과목이 체육이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소중했습니다.

1-3(양재원 선생님)

항상 밝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좋았습니다. 가끔 힘들고 서로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기억들이 추억으로 되어 행복한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반(박해수 선생님)

1학년 4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즐겁고 좋았습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학생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체육 한미당에서 우승한 순간, 그리고 롯데월드와 영화관에서 함께한 사계동행은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1-5반(이재욱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우리 반 학생들이 저를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했던 일이 가장 즐겁고 좋았습니다. 친구 시간에 학생들이 제가 미리 눈치채지 못하도록 친문까지도 모두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니 과자로 만든 케이크를 들고 생일 축하 한다는 노래를 불러 주었을 때, 담임으로서의 뿌듯함과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크게 생겼습니다.

또한,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 학생들이 현장 학습으로서 롯데월드에 갔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반 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해주기 위하여 했던 일인데, 반 아이들 스스로 조를 만들고 미션을 정하여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학창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2-1반(조은미 선생님)

우리 반 학급 특색 활동으로 '어깨 짹 페, 넌 소중한 사람'이야기를 운영했어요. 학기 초에 반 아이들과 함께 대학 탐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생각납니다. 시험이 끝나고 흥기분한 마음으로 대학을 방문했는데 그때 아이들의 상기된 얼굴과 즐거워하던 모습이 기억나 흐뭇해지네요. 그리고 교과 수업에 잠깐 시간을 내어 반 아이들과 오락 시간을 가졌던 것이 좋았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가까워진 것 같아요.

2-2반(곽이삭 선생님)

평소 조회/종례 시간에 학급 공지 이외 사적인 대화를 통하여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학생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2-3반(임별 선생님)

모범학급에 선정되어서 햄버거와 피자를 먹은 일이 기억납니다.

2-4반(최재웅 선생님)

생각보다 훨씬 착하고 순한 4반 아이들! 막 까불고 신나는 에너지 넘치는 너희들을 보면서 순간마다 고마움이 많이 들었다. 나를 친정하고 순둥순당한 너희들 덕분에 그래도 올해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조금 짹짜 하긴 하지만 학급별 축구에서 1등 한 것! 뿌듯뿌듯 내년에는 큰 운동장에서 45분 풀타임으로 뛸 수 있기를

2-5반(정예현 선생님)

모두들 밝고 긍정적인 학생들로 구성된 2학년 5반, 수업시간이 아닌 조회, 종례시간에서 만났지만 학생들끼리 자료 공유해 주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워 보였고 단합된 모습이 이뻐 보였습니다.

02.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웠던 점

1-1반(정하림 선생님)

1반을 지도하는 기간 동안에는 온전히 아이들에게 신경쓸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하느라 신경을 못쓰는 순간들이 아쉬웠고 앞으로는 지금 1학년 1반의 나머지 2년을 함께하지 못하는게 아쉬울 것 같습니

1-2(송상원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 느끼는 순간, 교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낌

니다. 하지만 반 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게임으로 시간을 보냈던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1-3반(양재원 선생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나 아쉬운 일이 생기는 법이다. 앞으로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하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학교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면 된다. 혹 아쉽고 서운했던 일이 있다면 과거에 얹매여서 생각만 하다 끝내지 말자. 내년에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자. 담임으로서 1학년 3반에게 아쉽거나 서운한 일은 없다. 늘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1학년 3반이다. 자랑스럽다.

1-4반(박해수 선생님)

아쉽고 서운했던 일은 없고 학업에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들을 조금 더 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1-5반(이재욱 선생님)

아쉽고 서운했던 일은 없습니다.

2-1반(조은미 선생님)

반 아이들과 더 많은 활동을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어요. 특히 '어깨 짹 페' 프로젝트를 총 3번 기획했는데 대학 탐방 외에 나마지 는 참여율이 저조했어요. 정규 일과 외에 아이들과 얘기도 나누고, 추억도 쌓고 싶었는데 마음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학여행을 함께 못간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2-2반(곽이삭 선생님)

1학기 사계동행을 많은 준비를 하여 청계산으로 갔었는데 가서는 다 같이 신나게 놀았지만 가기 전에는 등산을 데리고 간다고 아이들이 투덜 거렸던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2-3반(임별 선생님)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 우승을 아깝게 놓친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많은 시간, 많은 대화를 못 나눈 것이 미안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같은 고민을 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2-4반(최재웅 선생님)

학기초가 아니고 추석연휴 갑작스럽게 2학년

5반 담임으로 맡게 되었는데, 서로 많이 가까워지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서로 배려해 주는 따뜻한 2학년 5반 학생들이 고마웠습니다.

Q3. 진급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

1-1반(정하림 선생님)

한 명 한 명 모두 가능성이 넘치는 친구들인데 스스로의 가능성을 너무 모르고 있어. 앞으로의 고등학교 2년동안 정말 성실히 공부하고 성적과 세특 잘 향겨서 다른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자! 항상 예의바르고 성실하게 행동하고 해맑고 착한 1학년 1반 화이팅! 칭찬한 앞 길을 만들어 가자! 다행 사랑한다~

1-2(송상원 선생님)

'하늘은 다른 길로 보낼지 안정, 틀린 길로 보내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적이 안 나오거나 다른 힘든 일로 어려움에 딱 치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슬퍼하기보다는 묵묵히 본인의 일은 성실히 한다면 이루고자 하는 꿈은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매 순간 열정을 넘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1-3반(양재원 선생님)

늘 항상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길 바랍니다. 스스로 본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맷돼지처럼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1-4반(박해수 선생님)

멋지게 성장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길 바랍니다!

1-5반(이재욱 선생님)

1년 동안 부족한 선생님 잘 따라 줘서 너무 고맙고, 2학년 올라가서도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선생님의 제자이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겁니다. 언제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오면, 같이 고민을 해주는 선생님이 되도록 할게요. 많이 고맙고, 여러분들 담임이어서 행복했습니다.

2-1반(조은미 선생님)

3학년을 앞두고 진로와 진학에 고민인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학년이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현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목